저출가 시대, 불교의 역할은?

불광연구원, 25일 학술연찬회

출가자 감소에 따른 승가 위상 변화와 재가자 역할을 학술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원철)과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출가 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승가의 위상 변화와 재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박수호 덕성여대 연구교수가 '출가자 감소의 대내외적 원인과 대책',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저출가에 따른 승가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재가불자의 위상과 역할 변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저출가 시대의 전법 전략과 비전'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어 법인 스님(일지암 암주), 원철 스님(포교연구실장), 석중 스님(교육원 연수국장), 양군수 포교사단 부단장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문화유산 세계화 청소년이 앞장

문화재청, 외국어 해설 대회 공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과 공동으로 '2016 전국 학생 문화유산 외국어(영어 · 중국어) 해설 경진대회'를 오는 8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 · 중 · 고등학생(영어 · 중국어)과 대학생(영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계유산,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 동영상을 촬영하여 참가 신청서, 발표 원고(외국어, 한글 번역본)와 함께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웹하드에 올리거나 우편 · 방문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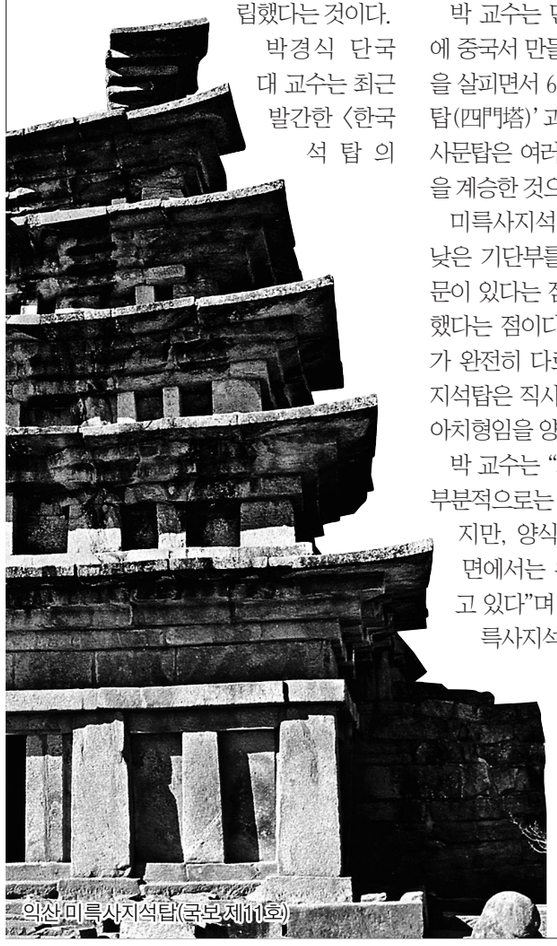
접수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로 서류 · 동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영어 18팀, 중국어 9팀을 선정하여 8월 12일 문화재청과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본선은 8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며, 문화유산 외국어 해설 현장경연과 질의 · 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02)3210-3266 신성민 기자

"한국 석탑 시원, 中 전탑에 기인 않는다"

박경식 교수, 〈한국 석탑의 양식 기원〉서 주장

일반적으로 한국 석탑의 기원은 중국 전탑(塼塔)에서 찾아왔다. 하지만 한국 석탑의 중국 기원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석탑을 건립했다는 것이다.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박경식 단국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 석탑의 양식 기원〉을 통해 한국 석탑의 중국 기원설을 반박했다.

박 교수는 반박의 근거로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과 경주 분황사모전석탑(국보 제30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먼저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중국서 만들어진 다양한 불탑의 양식을 살피면서 611년 지어진 산둥성 '사문탑(四門塔)'과 한국 석탑을 비교했다. 사문탑은 여러 면에서 목조건축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륵사지석탑과 사문탑은 공통점은 낮은 기단부를 두고 있는 것과 사방에 문이 있다는 점, 석탑 안에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사면의 문도 미륵사지석탑은 직사각형인 데 반해 사문탑은 아치형임을 양식적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사문탑과 미륵사지석탑은 부분적으로는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양식적인 면에서나 구조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7세기 초반 백제에서 미륵사지석탑을 통해 이룩한 재로의 변화와 기술력은 바로 중국의 불탑문화와는 차별화된 길로 들서는 요인이 됐다. 이는 신라로 계승되고 더욱 발전한 결과 한국 석탑의 정형을 확립하는 시금석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塔 중국 기원 통설 전면 반박
미륵사지 · 분황사 塔 근거 제시
중국 탑들과는 다른 계통 보여
中 문화적 영향력 벗어나 있어

사문탑이 분황사모전석탑 건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 통설도 박 교수는 반박한다. 사문탑은 단층이지만 분황사모전석탑은 3층이고, 탑을 쌓는 데 사용된 돌도 사문탑 쪽이 훨씬 크다. 문의 생김새와 봉안물도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석재를 벽돌과 같이 다름어 충적식으로 건립한 모전석탑은 동아시아에서 분황사모전석탑이 유일하다"면서 "사문탑과 분황사모전석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분황사모전석탑은 중국 초기 불탑과 양식적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를 대표하는 미륵사지석탑과 분황사모전석탑이 다른 계통의 불탑임을 밝혔다. 미륵사지석탑이 조적식과 가구식이 포함된 이원구조체인 반면, 분황사모전석탑은 충적식 구조이며, 이는 탑 재료의 차이와 기술력의 차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던 실심체 구조와도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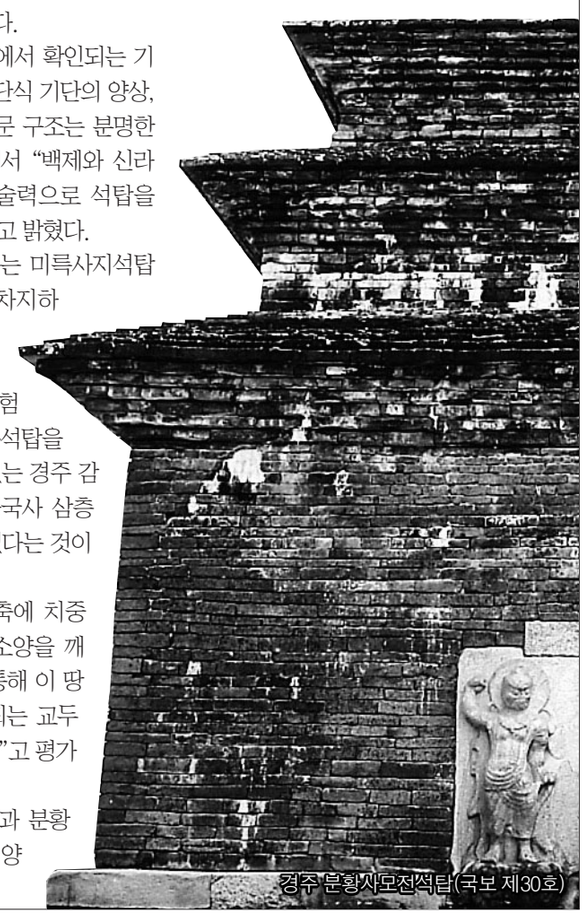
박 교수는 "양 석탑에서 확인되는 기단부의 이층기단과 층단식 기단의 양상, 초층 탑신에 구현된 4문 구조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면서 "백제와 신라는 각각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석탑을 건립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미륵사지석탑이 한국 석탑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했다. 미륵사지석탑을 축조하면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비롯해 신라 영토에 있는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불국사 삼층석탑 축조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목조건축에 치중했던 당시의 문화적 소양을 깨트린 쾌거였고, 이를 통해 이 땅이 '석탑의 나라'가 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륵사지석탑과 분황사모전석탑에 내재된 양식과 기술력은 중국의 초기 불탑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건립된 것이 아니다"면서 "불탑의 건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백제와 신라는 결코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분황사모전석탑(국보 제30호)

"오늘의 관심으로 '붓다'를 이해해야"

조성택 고려대 교수
17일 향상포럼서 주장

사문유관 서사, 구도 과정 국한
"제도적 종교로 불교 이야기 할
새로운 불교 서사가 필요하다"

"지금의 한국불교에서 감동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불교에 대한 교리만 있을 뿐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꽃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불교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불교가 현실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6월 17일 열린 한국불교 향상포럼 6월 모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새로운 불교 서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근대 이후 지금의 불교는 관념적 교리와 역사로 구성된 과거의 전통일뿐"이라며 "불교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활용되고 있지 못한 채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에서 불교가 담론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교리로서만 논의되는 것은 불교에 대한 지식을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담론은 이야기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서사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불교는 싯다르타의 출가와 깨달음이라는 일련의 서사와 교리가 긴밀히 교직돼 있다"면서 "깨달음을 위해 세속을 떠난 싯다르타의 서사는 삶의 모델이자 바람직한 삶을 위한 선택이 된다. (이를 통한)출가제도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제도적 종교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사문유관 서사와 사성제 교리는 짝을 이루고 있으며, 근대 이후에서는 서구 심리학적 해석이 가미되면서 깨달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경향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며 이제는 새로운 불교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부처님을 이해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붓다의 삶을 역사화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 역사의 빛으로 붓다의 삶을 재조명하는 일, 그리고 오늘의 관심으로 붓다를 이해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이론 · 수행 겸비한 불교 리더되길"

동국대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 23기 수료식

동국대(총장 보광)는 6월 15일 서울 중구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불교대학원 불교리더십 최고위(CEO)과정 2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23기 수료생 45명을 비롯해 재학생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총장 보광 스님은 "불교리더십 최고위(CEO)과정은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탄탄한 커리큘럼을 갖췄다. 여기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망 있는 교수님들의 열정적 강의로 불교와 경영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실무를 겸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가르침 아래 맺어진 소중한 인연으로, 동국대의 발전과 밝은 미래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수료식에 이어,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 23기 수료자들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은 동국대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했다. 2004년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총 79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불교경영자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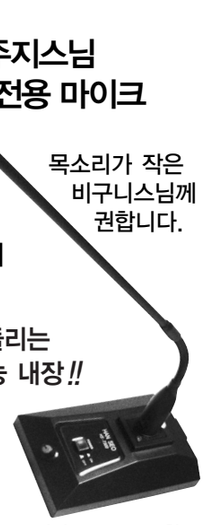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